

# 최고 시청률 65% 뜨거웠던 평창 열기

동계올림픽 중계 경쟁도 막 내리

가지각색 해설 열전에 시청 재미 더해

인기 종목 위주 편성에 아쉬움 남아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25일 폐막하면서 지상파 3사 간 치열했던 중계 경쟁도 막을 내리게 됐다.

국민이 큰 관심을 보였던 경기들의 시청률과 방송국별 인기 해설진, 아쉬웠던 점 등을 결산해본다.

◇ 이상화 경기 65.3%~시청률 1~7위 50% 넘어  
3사 시청률 합이 가장 높았던 경기는 '빙속 여자' 이상화가 은메달을 안긴 지난 18일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로, 65.3% 이하 닐스코리아에 달했다. 채널별로는 KBS 2TV가 27.8%로 가장 앞섰고 SBS TV가 25.2%, MBC TV가 12.3%로 뒤를 이었다.

시청률 2위 경기는 이승훈이 금메달을 딴 지난 24일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매스타트 결승전으로 57.4%였다. SBS TV가 23.0%, KBS 2TV가 19.1%, MBC TV가 15.3%로 집계됐다.

3위는 은메달을 딴 지난 21일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팀추월 결승전으로 57.2%였다. 채널별로는 SBS TV 25.1%, KBS 2TV 18.6%, MBC TV 13.5% 순이었다.

4위는 서이리가 동메달을 딴 지난 17일 쇼트트랙 남자 1,000m 경기(3사 합계 56.3%), 5위는 같은 날 최민정이 금메달을 획득한 쇼트트랙 여자 1,500m 결승전(55.4%)이었다.

이밖에 김보름이 은메달을 딴 지난 24일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매스타트 결승전(54.6%)과 지난 22일 은·동메달을 동시에 획득한 쇼트트랙 남자 500m 경기(50.4%), 임효준이 한국에 첫 금메달을 안겼던 지난 10일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전(47.9%) 등도 크게 주목받았다.

시청률 1위부터 7위까지가 모두 50%를 넘으며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올림픽과 출전 선수들에 대한 큰 관심을 증명했다.

특히 SBS는 이번에 주관방송사로서 철저히 준비한 덕분에 시청률과 화제성을 동시에 잡았고, SNS와 모바일에서도 팬들을 끌어모으며 성공적인 올림픽을 치렀다. KBS 역시 두 개 채널과 신선한 해설진을 활용하며 선전했다.

MBC TV는 개막식 때 불거진 개그맨 김미화의 중계 논란 등의 영향으로 초반부터 시청률 면에서 승기를 잡지 못했다. 다만 VOD 조회 수에서 선전하며 훌륭한 재미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 '배갈콤비'와 '재호노트'에 박재민·안상미까지 해설 열전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시청자의 호응을 얻은 해설진은 SBS TV의 배성재 캐스터-제갈성렬 스피드스케이팅 해설위원이다.

열정 넘치는 제갈성렬의 해설, 전문성과 적절한 순간 끊어주는 노련함을 함께 갖춘 배성재의 진행이 호평받았다. 끊임없이 썰렁한 농담을 시도하는 제갈성렬과 가지 없이 끊는 배성재의 티격태격 콤피디가 긴장 속에 웃음을 줬다.

SBS에서는 이외에도 오랜 호흡으로 안정감을 자랑하는 쇼트



트랙의 배기완 캐스터-전경성 해설위원과 '해리포터'로 불린 조해리 해설위원이 주목받았다.

KBS에서는 '컬링노트'로 각종 패러디를 넣은 이재호 컬링 해설위원이 눈길을 끌었다. 화면 옆 표시되는 노트에 펜으로 스톤의 방향을 예측해주는 이재호 위원은 종종 무리한 요구(?)를 해 '망상노트'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우리 대표팀이 그대로 실현하면서 '현실노트'가 됐다. 이밖에 배우 박재민이 스노보드 해설위원으로 나서 입담과 전문성을 자랑해 화제를 모았고, 피겨스케이팅에서는 최근까지 현역으로 뛰었던 관민정이 해설에 나서 인기를 얻었다.

MBC에서는 쇼트트랙의 허일후 캐스터-안상미 해설위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안상미는 선수들을 직접 만난 얘기와 함께 선수들의 특징을 짚어주는 차분한 해설을 선보여 '갯살미'라는 애칭을 얻었다.

◇ 방송사 "어쩔 수 없다"지만...아쉬움 인기종목 위주 중계  
지상파 3사가 각종 드라마와 예능도 결방하고 메인 뉴스도 미룬 채 올림픽 중계에 전념했지만, 어느 채널을 틀어도 같은 장면만 나오는 데 아쉬움을 표하는 시청자가 많았다.

한 지상파 방송국 관계자는 "다들 '대목'인 올림픽 기간 중계 전후로 붙는 광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시청자가 보고 싶어하는, 메달 획득 가능성이 높고 한국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를 위주로 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말뉴스

## “행사·광고·작곡 ... 하고 싶은 건 다 해보죠”

‘행사 섭외 1순위’ 홍진영, 음원사이트 트로트 부문 1위 눈길

장운정을 잇는 신세대 트로트 가수로 등장한 지 10여년. 당시 '제2의 장운정'이 되겠다며 여러 신인이 도전했지만 유일하게 살아남은 홍진영(33)은 어느덧 '갯데리'(대부곡 '사랑의 배터리'에서 따온 별명), '홍블리'로 불리는 '대세'가 됐다.

그는 어느 트로트 가수들과 노선을 달리해 아이돌 가수처럼 예능에서도 총활무진 활약했다. 처음에는 넘치는 흥과 애교로 인해 '비호감'이란 말도 들었지만 특유의 솔직함과 밝은 에너지를 한결같이 보여주면서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 예능인으로도 자리 잡았다.

호감도가 높아지면서 최근 발표된 신곡 '잘가라'는 트로트로서는 이례적으로 최대 음원사이트 멜론 25위까지 진입하고 각종 트로트 차트 1위를 석권했다.

그는 바쁜 일정에도 피곤한 기색 없이 "피로는 집에

서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하면서 푼다"며 대답 하나에 웃음 한뼉을 섞을 정도로 유쾌한 모습이었다.

"1~2월은 행사 시즌이 아닌데, 작년보다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바쁠 때는 하루 3~4개씩 일정이 있을 때도 있고, 이 분야는 인기가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어진 것은 최대한 열심히 하자는 주의예요. 하하하."

그는 2016년 발표한 '엄지척'이 인기를 얻고, 지난해 출연한 KBS 2TV '언니들의 슬램덩크 2'에서 '언니즈'로 화제가 되면서 지난해 바쁘게 행사 무대를 밟았다. 행사 섭외 1순위로 꼽히는 가수답게 연중행사 사이클과 유행도 잘 꿰고 있었다.

그는 "1월에는 기업 사무식이 있고 2월 중순부터 대학교 OT 시즌이 시작된다"며 "3월 말부터는 날이 풀리니 지방 축제들이 이어지고, 5월에는 대학 축제 시즌이다. 요즘은 대학 축제에 아이돌 가수뿐 아니라 힙합, 발라드, 트로트 등 장르별로 가수를 초대해준다.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지방의 계절 축제들이 있고, 겨울에는 스키장과 기업의 송년 행사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고 싶은 건 해본다"는 게 신조인 홍진영은 작곡에도 도전해 지난해 4월 개그맨 김영철에게 '따르릉'을, 이달 강호동에게 '복을 발로 차버렸어'를 선물하기도 했다. 모두 EDM(일렉트로닉댄스뮤직)을 섞은 일렉 트로트로, 김영철은 '따르릉'의 인기에 힘입어 최근 '안되나용'까지 발표했다.

홍진영은 "사실 작곡을 틈이 했지만 처음 발표된 곡이 '따르릉'이었다"며 "음악을 재미있게 즐기면서 하고 싶었고, 바쁠수록 일에 치이지 않고 뭔가를 더 해보고 싶었다. 만들어둔 발라드가 2곡 더 있는데 다른 가수들에게도 곡을 선물하고 싶다. 언젠가는 자작곡을 불러보고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작곡뿐 아니라 그는 웬만한 가수들도 찍기 어렵다는 광고까지 섭렵했다. 화장품, 보일러, 치킨, 안마의자, 블랙박스, 한돈, 체인 음식점 등 트로트 가수로는 이례적으로 다수의 광고를 찍었다.

"제 캐릭터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지지치 않는 모습을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 감사할 따름이죠. 앞으로는 '트로트 가수'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어?'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는 오랜 시간 트로트 시장이 침체라는 말에도 "트로트에 여러 장르가 섞일 것이며 이를 통해 트로트가 젊은층에 한층 친근해질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기대했다.

연말뉴스



TV 프로그램 2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역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터즈
9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쁜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다시 만나는 하얀거탑 UHD(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코리아 지오그래픽 플러스(재) 25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해단식	00 라디오 로맨스(재)	25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해단식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평창 2018 대한민국 선수단 해단식
12	00 KBS 뉴스 12 30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결산 특집 우리 평창 어우러지다		05 12 MBC 뉴스 20 문화사색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집토론(재) 호남 3당 체제, 민심은 어디로
1	20 연중기획 빛고를 행복아카데미(재)	00 VJ 특공대(재)	10 헬로키키 동물교실	55 닥터 365
2	20 콘서트 필(재)	00 KBS 뉴스타임 10 영화가 좋다	05 드림 주니어 스페셜 35 사이닝스타	00 뉴스브리핑
3	10 공감다큐, 사람(재) 30 탈도탐상(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05 경제매거진 M 스페셜 55 55 유년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00 토크콘서트 화통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설 특집 살림하는 남자들(재)	00 5 MBC 뉴스 15 김경식의 영화 대영화 30 전생애 엘수들(재)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키스 먼저 할까요? 모아보기(재)
7	00 KBS 뉴스 7 35 우리말 겨루기	50 인형의 집	15 전생애 엘수들 55 MBC 뉴스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품지락
8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 24 55 재보자들	55 삐그덕 하이로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40 가요무대			
10	40 KBS 뉴스라인	00 라디오 로맨스	25 다시 만나는 하얀거탑 UHD	00 키스 먼저 할까요?
11	10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2부작	10 안병하세요	35 테마기행길	10 동상이몽 2 너는 내운명 1~2부
12	00 이웃집 할스(재) 50 생활의 발견	35 사랑의 가족(재)	35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30 나이트라인

### EBS1

05:00 왕초보 영어	09:30 우리는 비트몬스터	15:00 호기심 나라 오기도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프랑스 외인기행 - 부르고뉴)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5:15 파프리카	20:40 세계테마기행 〈발칸의 매력에 빠지다 크로아티아 시간 위를 산책하다〉
06:00 한국기행	10:30 한국기행(재)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21:30 한국기행 〈나는 겨울을 살기로 했다 겨울 왕국으로의 초대〉
06:20 세계테마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참나물 깨원장국과 고추스스 숙주볶음)	15:45 부릉부릉! 브루미즈	21:50 EBS 다크프라임 (생존 제1부 - 최후의 생존, 삶)
07:00 허풍선이 과학쇼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00 냉장고 나라, 코코롱	22:45 메디컬 다크 7요일
07:30 로보카 폴리	12:00 EBS 점오 뉴스	16:15 웅감한 소방차 레이	23:55 엄마를 찾지만
07:45 출동! 슈퍼월드2	12:10 극한직업 스페셜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24:45 지식채널e
08:00 당동명 유치원 1~2	13:00 다크 오늘	16:45 당동명 유치원 1~2(재)	24:50 세계의 드라마 (에이 워드 1부)
08:30 플라워링 하트	13:10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산다	17:15 로보카 폴리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3:40 엄마를 찾지만(재)	17:30 마샤와 곰	
09:00 몬카트	14:30 뚝딱맨	17:45 띠띠뽀 띠띠뽀	
0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화산섬의 비밀		18:00 생방송 퓌! 퓌! 보니하니 1~4	
		19:00 스페이더맨	
		19:30 EBS 뉴스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子	丑	寅	卯	辰	巳
48년생 계획했던 일이 드디어 진행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60년생 맹점이 보인다면 즉시 보완하는 것이 좋다. 72년생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된다. 84년생 작은 것에 기쁨이 있는 법이니 소박함에 정성을 다하라. 행운의 숫자 : 36, 22	49년생 본디의 것과 거의 비슷한 형태를 이루리라. 61년생 거의 대동소이하니 일괄 처리해도 된다. 73년생 현상을 제대로 분석하고 확실히 대응하라. 85년생 이미 탄저진 주시위와 같은 이치이니 편한 마음으로 기다리라. 행운의 숫자 : 51, 52	50년생 발생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시 대처하라. 62년생 담벼락하고 말하는 셈이니 입만 아플 것이다. 74년생 절제대로만 진행한다면 순조롭다. 86년생 이왕이면 다중적 인 복합 기능이 경제적이다. 행운의 숫자 : 91, 70	51년생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으니 제반 준비를 해야 하리라. 63년생 의도대로 실행한다면 무난하리라. 75년생 목표에 이르기 전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선회할 수도 있다. 87년생 무실고 방치한다면 더 악화되리라. 행운의 숫자 : 84, 80	52년생 지름길로 가려다가 낭패를 볼 수다. 64년생 지난날의 영화를 회복하는 운세로 볼 수 있으니 안심해도 되는 단계이다. 76년생 대일이 이루어지려는 단계에 이르렀으니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하라. 88년생 무자식이 상팔자다. 행운의 숫자 : 96, 54	53년생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고 재고하라. 65년생 내리막길이라는 하지만 미끄러우니 세심하게 주의하라. 77년생 이목을 끄는 관심사가 생긴다. 89년생 물질적인 면은 양호하지만 심리적인 압박감이 따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99, 59
42년생 중용으로써 삼가라. 54년생 가벼운 언행이 시비로 비화될 수 있다. 66년생 즉시 대처하는 것이 좋다. 78년생 해결점을 찾으면서 지리멸렬했던 소강상태를 벗어나는 판세에 놓인다. 90년생 처음부터 시작함이 나올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6, 69	43년생 사람의 마음이 다 같을 수 없다. 55년생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다. 67년생 과정은 힘들더라도 결과적으로 이익이 따를 것이리라. 79년생 가을의 결실이 예견되는 판세이니 기쁘게 파종하라. 91년생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94, 65	44년생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실행하는 것이 이상이 높다. 56년생 규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좋다. 68년생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된다. 80년생 목표점에 진입하고는 있으나 현재의 판세로는 변수가 있다. 행운의 숫자 : 80, 20	45년생 매우 강도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안전장치가 시급하다. 57년생 요행이 따르는 하루가 될 수 있느니라. 69년생 승산의 여지는 충분하니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지 마라. 81년생 급히 손절해야 할 부분 보이나 조지하라. 행운의 숫자 : 15, 55	46년생 희망찬 기운의 진행이 계속되는 운이므로 미심쩍은 점이 있다면 개이지 말고 임하라. 58년생 단번에 큰 것을 이루기에는 무리가 따르리라. 70년생 투병하고 정화해야겠다. 82년생 확정한 후에 결정해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1, 01	47년생 오감을 만족 시키는 기쁨이 보이느니라. 59년생 선점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불리하다. 71년생 몸조심에 제일이니 항상 안전을 추구하고 완벽함을 기하라. 83년생 만사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79, 14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지원팀” ☎010-9790-8237